

통일사상으로 본 과정철학: 세계와 신의 본성을 중심으로

주재완 (선문대학교)

I

과정철학(process philosophy)은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가 창안한 철학 체계로 최근 철학계에서 주목 받고 있는 철학사상 중의 하나이다.¹ 과정철학이 이렇게 주목을 끌고 있는 주요한 이유는 바로 근대 유물론 철학을 넘어서는 대안적 사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1982년 미국 클래어몬트(Claremont)에서 과정철학(Process Philosophy)과 통일사상(Unification Thought)을 비교하는 세미나가 열렸었다. 이러한 세미나가 열렸었다는 것은 양 사상이 의미 있게 비교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과연 후술되는 바와 같이 양 사상은 세계에 대한 이해의 주요한 부분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논자는 본 논문에서 통일사상의 관점에서 과정철학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양 사상에 대한 비교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은 그 수준에서 시론적 논문이 될 것이다. 통일사상의 관점에서 과정철학을 평가하는 작업은 실재(reality)에 대한 우리들의 통찰을 넓혀 줄뿐만 아니라 통일사상 자체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고 섬세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양 사상에 대한 전반적 비교논의는 대단히 방대한 작업이다. 따라서 논자는 이 글에서 세계와 신의 본질에 대한 형이상학적 특징들만을 중심삼고 양자를 간단히 비교하고 통일사상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II

첫째, 먼저 세계의 본질에 대한 과정철학의 관점을 살펴보자. 과정철학에 의하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근원적 요소는 경험할 수 없는 실체(substance)로서의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시공간적 사건으로서의 “현실적 존재(actual entity)”다. 현실적 존재는 세계와 신을 경험하고, 그 경험에 입각해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며 최종적으로 그러한 존재로 현실화 된다. 현실적 존재가 현실대로 변하자마자 그 현실적 존재는 현실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과거의 사실이 되어서 후속하는 현실적 존재에게 경험된다. 현실적 존재는 세계와 신을 비감각적 지각, 즉 파악(prehension)을 통해 경험한다.

이러한 현실적 존재는 ‘정신성(mentality)’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정신성이란 ‘의식적 정신성(conscious mentality)’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정철학에서 ‘의식(consciousness)’이란 “합생(concrescence)”의 후기 위상에서 나타나는 주체적 형식일 뿐이

¹ 물론 다른 종류의 과정철학도 있다. 과정철학의 넓은 의미는 ‘실재의 본질은 실체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보는 철학’이다. 예를 들면 동양의 많은 비실체적 철학들이 이에 속한다.

다. 현실적 존재는 대개의 경우 의식됨이 없는 경험과 느낌들을 갖는다. 즉 일반적으로 이해와 달리 ‘의식’과 ‘정신성’을 구분하여 후자를 전자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로서의 ‘정신성’을 갖는 현실적 존재는 단순한 물질이거나 또는 단순한 정신이 아니라 정신성(mental side)과 물질성(physical side)을 동시에 갖는 존재이다. 다시 말해 과정철학에서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 존재는 정신성과 물질성의 양면을 갖는 존재로 이해된다.

통일사상에 의하면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는 성상(性相) 즉 마음적 차원과 형상(型狀) 즉 질료적 차원을 갖고 있는 이성성상(二性性相)적 존재이다. 성상과 형상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모든 존재가 이성성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이성성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성성상적 존재를 단순히 물질로 이해하는 근대 과학적 유물론은 치명적인 오류이다. 또한 세계를 구성하는 궁극적 존재를 정신으로만 보는 것도 오류이다. 세계의 본질을 정신만으로 또는 물질만으로 보면 세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통일사상의 관점으로 볼 때, 화이트헤드가 이러한 오류들을 극복하고 세계의 근본적 구성요소가 정신성과 물질성을 동시에 갖는 존재임을 깨달은 것은 탁월한 통찰이었다.

그러나 과정철학은 정신성과 물질성의 관계를 보다 깊이 통찰하여 양자의 관계성을 철학적으로 형식화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사상에 의하면 성상과 형상은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갖고 수수작용을 통해 그 존재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힘을 발생한다. 물론 과정철학도 양자의 관계를 언급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기본적인 범주적 틀로 구성되어 사상의 전반적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한편 여기서 통일사상은 한가지 질문을 받게 된다. 과정철학이 언급한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질문이다. 즉 마음적 차원의 성상에 있어서 의식과 무의식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다. 통일사상은 이 점에서 좀더 섬세하게 발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논자의 추론으로는 무생물의 경우, 그들의 성상은 무의식적 정신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둘째, 정신성의 세부적 특징을 좀더 살펴보자. 과정철학에서 세계의 궁극적 요소가 정신성을 가지고 세계를 경험하고 이에 입각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궁극적 요소들 사이에 내적 관계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이프니츠(Leibniz)의 창문이 없는 모나드(windowless monad)와 달리, 과정철학의 현실적 존재는 세계를 향해 창문을 열고 세계를 경험한 다음, 창문을 닫고 그 경험에 대한 주체적 선택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결정한다. 다시 말해 모든 존재는 필연적인 내적 관계를 통해 존재하는 유기적 관계를 가지며 따라서 세계는 거대한 유기체에 비유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인 정신적 요소는 자유(freedom)와 정서(emotion)이다. 모든 존재는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현재는 과거의 사실로부터 기계적인 인과에만 따르지 않는다. 물론 한편으로 과거에 영향을 받지만, 영향 받지 않는 주체적 결단의 영역이 존재한다. 또한 경험 주체의 결정은 그 주체 안에 발생하는 정서에 크게 의존한다. 정서는 경험 주체를 움직이는 근원적 동기이다. 경험

주체는 보다 큰 미적 경험의 강도를 지향해 결정하게 된다.

과정철학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통일사상의 관점으로 볼 때 인정될 수 있다. 통일사상에 의하면 성상과 형상으로 구성된 모든 존재는 전체 목적과 개체 목적을 가지며, 또한 내적 수수작용과 외적 수수작용을 통해 모든 개체는 다른 개체가 연결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 연결되고 나아가 모든 개체는 하나의 전체를 이루어 거대한 유기체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개체가 내적 관계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과정철학의 관점은 타당하다. 그러나 과정철학에서 말하는 내적인 유기적 관계는 동시적(同時的) 존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직전의 과거 세계와의 사이에서 일어난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유기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현재와 과거의 관계라고 말해야 한다. 논자의 이해로는, 통일사상에 의하면 모든 존재는 주체와 대상의 필연적 관계를 맺는데 이는 동시적 존재 사이의 관계로 이해된다. 동시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들이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를 이루는 것이다. 또한 과정철학은 개체들이 전체목적과 개체목적이라는 이중목적에 갖는 존재임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유기체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전체목적과 개체목적이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 조화로운 수수작용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한 관계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유기체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기본적 존재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과 정서적 요인이 그 존재를 움직이는 핵심요소라는 과정철학의 주장도 통일사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통일사상에 의하면 성상은 기본적으로 지정의의 기능을 갖는다. 비록 차원은 낮지만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적 입자들도 같은 기능을 갖는다고 이해된다. 그렇다면 그들도 어느 정도 자유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유가 없는 정신성이란 있을 수 없다. 과정철학이 자유를 기본 존재들의 본성 속에 포함시킨 것은 통일사상의 관점에서 긍정될 수 있다. 통일사상에 있어서 정서는 더욱더 중요한 존재의 본성이다. 특히 통일사상은 심정(心情)을 존재의 핵심으로 이해한다. 심정을 중심으로 지정의(知情意)가 작동한다. 인간과 동물뿐만 아니라 우주의 기본적 입자들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은 심정을 그 핵심적 본질로 갖는다. 심정이란 기쁨을 얻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이며, 이 충동에 자극 받아 지정의가 움직인다. 심정이 동기가 되어 관계를 맺고 존재하고 활동한다. 따라서 모든 존재의 관계 속에는 심정 즉 사랑이 내포되어 있게 된다. 과정철학은 정서의 중요성은 말하지만 그것이 깊이에 있어서 더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정(情)은 미(美)를 추구하는 정신의 기능이다. 따라서 기본적 존재가 미를 추구한다는 과정철학의 주장은 타당하나 그 속에 흐르는 심정과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못하고 있다. 과정철학은 이 점을 충분히 통찰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경험의 단위화에 대해 고려해 보자. 과정사상에서 기본적 존재들의 경험은 단위지어져 있다 (quantized 또는 unitized). 한번의 경험은 한번의 결과를 낳게 된다. 논자의 이해에 의하면 통일사상에 있어서도 기본 입자들의 경험은 단위 지어진다. 즉 사위기대는 하나의 경험의 결과를 산출한다. 사위기대란 경험의 단위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험의 단위라는 점에 있어서 통일사상과 과정사상은 이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양자는 대단히 심각한 차이를 보인다. 과정사상에 의하면 경험의 단위는 곧바로 존재의 단위가 된다. 즉 한 경험은 한 존재이며, 경험의 끝은 존재의 끝이다. 그 존재는 더 이상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 후속되는 존재에 의해 과거의 사실로 기억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통일사상에 의하면 경험의 주체는 시간과 공간을 지나면서 다양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다. 즉 경험의 단위는 존재의 내부에서 발생한다. 이것은 실체 존재론과 다르다. 실체 존재론은 내적 경험을 가질 수 없으나 통일사상의 존재론은 내적 경험을 본질로 삼는다. 통일사상에 의하면 존재는 자기 동일성과 변화를 동시에 갖는다. 자동적 사위기대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며 동시에 발전적 사위기대를 통해 변화 발전을 성취한다. 통일사상의 관점으로 볼 때, 화이트헤드는 과정 존재론은 실체 존재론을 극복하려는 의도에 지나치게 충실한 나머지 세계의 지속적인 본질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실수를 하였다. 과정존재론을 인간의 현실과 연결시켰을 때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자신의 결단에 책임져야 할 윤리적 주체는 이미 과거로 사라진다. 현재의 나는 과거 다른 존재의 결단에 책임이 없다.

III

이제 신(God)에 대한 과정철학과 통일사상의 견해를 비교 평가해 보자. 과정철학에 의하면 신은 하나의 현실적 존재로서 다른 현실적 존재와 같이 정신성과 물질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양극적(bipolar) 존재이다. (그러나 다른 현실적 존재와 달리 신은 다른 모든 현실적 존재에게 목적성을 부여하고 그 방향으로 존재들을 설득하는 궁극적 현실태(actuality)이다.) 한편 통일사상에 의하면 신은 모든 피조물의 근원으로서, 신이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이성성상으로 존재하게 된다. 통일사상에 의하면 신의 양극성에 대한 과정철학의 주장은 타당하다. 또한 과정철학에 의하면 현실적 존재로서의 신은 세계에 정서적으로 반응한다. 세계의 정서를 자신의 것으로 느끼고 이에 기초해 세계를 보다 미적 경험이 충만한 방향으로 이끈다. 중세 기독교철학처럼 신을 무감각한 부동의 동자로 이해하지 않고 세계의 고통과 기쁨을 느끼며 슬픔과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신으로 이해한다. 통일사상에 의하면 신의 본질은 심정이다. 심정이 동기가 되어서 인간과 세계를 창조했다. 즉 사랑을 주고 받음으로써 기쁨을 얻고자 창조하였다. 그러나 인간이 태초의 계획대로 완성되지 않고 이탈함으로써 인간과 세계는 슬픔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고 이를 경험하는 신 또한 슬픔과 고통의 신이 되었다. 신은 다시 기쁨을 찾기 위해 인간을 회복시키는 섭리를 이끌어 오신다. 이와 같은 통일사상의 관점으로 볼 때 과정철학이 정서적 신을 말하는 것은 크게 긍정된다. 그러나 과정철학은 아직 신의 한(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의 슬픔과 고통의 원인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을 개혁하는 바른 방향을 제시하기가 애매하다.

이제 중요한 차이점을 지적해 보자. 신과 보편자를 구분하는 것은 과정철학의 가장 큰 특징들 중의 하나이다. 과정사상에 의하면 신이 비록 모든 현실적 존재들에게 목적을 제공하고 설득하지만, 궁극적 실재(ultimate reality)로 이해되지 않는다. 과정사상에서 궁극적 실재는 “창조성(creativity)”이다. ‘창조성’이란 “보편자 중의 보편자(the universal of universals)”로서 신으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닌 신으로부터 독립된 궁극적 보편자이다. 창조성은 신의 질료적 차원도 구성한다. 따라서 세계의 질료적 차원의 근원은 신이 아니라 ‘창조성’으로 불리는 궁극적 보편자가 된다. 이러한 견해는 통일사상의 관점을 볼 때 큰 오해가 아닐 수 없다. 통일사상에 의하면 신은 홀로 세계의 근원이다. 창조는 신의 내적 외적 발전적 사위기대를 통해 신생체를 출현시키는 것이다. 세계의 정신적 차원의 근원은 신의 성상이며 질료적 차원의 근원은 바로 신의 형상이다. 신 외에 세계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다른 궁극적 차원은 없다. 과정철학의 관점은 신이 성상과 형상의 통일체로 존재함을 깨닫지 못하고 형상을 신과 독립된 궁극적 질료의 차원으로 오해한 것이다. 일반 철학자들도 잘 지적하듯이 신과 보편자가 구분되면 신은 전통적 의미의 절대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한 신은 전능성을 가질 수 없으며 세계는 신에게 종속되지 않는다. 그러한 신은 세계의 예배를 받아야 할 존재가 될 수 없다.²

한편 과정철학의 신은 양(陽)과 음(陰)의 양극성(兩極性)을 그 본질로 갖고 있지 않다. 과정철학에 의하면 세계 속에 나타나는 양음의 이극성(二極性)은 필연적 결과가 아니다. 세계가 양음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각 현실적 존재들의 자기 결정에 기인하고 있다. 과정철학의 신은 양음의 양극성을 자신의 본성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의 양음의 현상의 근원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양음의 이극성은 단순한 가능태 중의 하나로써 현재의 우주 시대에 현실화된 우연적 산물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세계의 양음 이극성은 지극히 질서적이며 동양철학이 잘 보여주듯이 우주의 존재와 발전의 기본 원리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우연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세계의 양음의 이극성은 어떤 근원적 이유에 의해 필연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통일사상에 의하면 세계의 양음의 이극성은 바로 신의 또 다른 본질인 양음의 이성성상에 기인한다. 신은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의 통일체이며 또한 동시에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이다. 양성과 음성은 성상과 형상의 속성이다. 따라서 신에 의해 창조된 세계는 필연적으로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을 갖게 된다. 세계 속에 나타나는 양음의 양극성은 바로 신의 양음의 양극성에 그 원인이 있다. 과정철학은 세계의 양음의 양극성을 설명하는데 충분한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 통일사상의 관점으로 볼 때, 화이트헤드는 신의 양음

² 과정철학이 신과 보편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악(惡)의 문제 때문이다. 즉 신과 보편자를 분리시킴으로써 악을 신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신과 독립된 존재들의 자유 때문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적 의도를 충족시키기 더 큰 다른 철학적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는 없다. 통일사상은 신과 보편자를 분리시키지 않고 인간의 자유와 책임분담, 그리고 비원적 사랑의 힘이라는 조건을 통해 악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의 양극성을 본성으로 가지며 이로 말미암아 세계가 양음의 양극성을 그 본질로 갖게 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신의 양음의 양극성과 그에 따른 세계의 양음의 양극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의 남녀의 결혼의 필연성과 신성성(神聖性)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과정철학은 남녀의 결혼의 우주적 필연성을 말하지 못함으로써 동성애를 합리화시키는 효과를 낳는 등 인간 존재의 근거가 되는 뿌리를 철학적으로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³ 통일사상은 신의 양음의 양극성에 근거하여 인간 남녀의 결혼의 신적 기원과 우주적 필연성을 말한다.

IV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과정철학은 세계의 본질에 대한 주요한 통찰에 있어서 통일사상과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통일사상이 밝히는 바가 세계의 진정한 본질이라고 할 때, 그와 부분적으로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과정철학이 최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통일사상의 관점으로 볼 때, 과정철학은 세계의 본질에 대해 보다 깊이 통찰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설명이 충분히 합리적이지 못하고 세계의 현상을 설명하는데도 불충분한 한계를 갖는다. 과정사상은 세계와 신이 정신성과 질료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고, 자유가 있으며, 정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경험이 단위지어져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과정사상은 정신성과 물질성의 관계가 세계를 이해하는 근본틀(즉 성상과 형상의 수수작용 및 사위기대)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지 못하고, 심정과 사랑이 정서의 보다 근원적 차원임을 지적하지 못하고, 경험의 주체가 자기 동일성과 변화 발전성을 동시에 가짐을 통찰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신의 한과 슬픔을 충분히 철학적으로 다루지 못하며, 신의 형상을 신과 독립된 보편자로 오해하고, 양음의 양극성이 신의 본성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편 통일사상의 성상과 형상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좀더 세밀하게 깊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³ 일부 여성신학자들은 과정철학의 형이상학을 이용하여 동성애를 철학적으로 합리화시키고 있다.